

# “北核이 동북아 군비경쟁 불렀다”

## 美 군사전문지 보도

북핵과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 국가들의 최신에 전투기 구입, C4I시스템 업그레이드,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및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도입 등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매 계획을 추진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및 전작권전환 환수에 대비하기 위해 C4I시스템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일본=국내에서 운용화물기 구매사업인 C-X 사업과 해상순찰 및 대잠수함전 항공기 구매사업인 P-X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F-X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다기능 전투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C-X, P-X사업비 규모는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P-X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이 2005~2009년 중기국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F-X사업은 2009년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에서 만드는 최신에 스텔스 기인 F-22를 비롯해 F-35, F-15, F/A-18을 비롯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상기종으로 고려하고 있고, 일본이 자체 생산한 F-2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와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SM-3 방공시스템 등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 중 국방비 증액 군사적 위협 요인으로

## 日 30억달러 투입, 최신에 전투기 도입

## 한국, 프리깃함·차세대헬기사업 진행

◇한국=한국은 군현대화 및 병력감축을 위해 2천800억달러를 들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 계획 2020’을 진행중이다.

한국은 1천500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매하고 25억달러 규모의 FX사업에 따라 최신 전투기 20대도 도입할 계획이며 FFX 사업에 따라 프리깃함 6대를 올해 생산할 계획이며 디젤잠수함인 KSS-III 프로그램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또 육군은 UH-1H를 대체하기 위해 14억달러 규모의 KHP(차세대 헬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4개 대형 무기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진척이 안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1년부터 8대의 디젤 잠수함(사업규모 117억달러)을 비롯해 PAC-3 미사일(30억달러), P-3 대잠초계기(10억달러) 등을 구입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친중국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또 F-16 전투기 60대(50억달러)를 구입하려던 계획은 작년 11월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호주=2001년부터 국방증강 10년계획(사업규모 419억달러)에 따라 공군의 경우 F/A-18 전투기 71대와 F-111 전투기 21대를 2018년까지 최신에 F-35기 100대로 대체할 계획이고,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춘 3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 6대의 무인항공기 UVA와 8대의 해상순찰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UVA 기종으로는 글로벌호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도=중거리 다기능 전투항공기 126대를 구입하는 것을 비롯해 30대의 잠수함과 230개 포병연대에 사용할 155MM 대포 등 모두 350억~400억달러의 무기 구매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 日 여객기 앞바퀴 없이 비상착륙

知공항에 앞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비상착륙하고 있다. 활주로에 미끄러지는 앞 동체에서 불꽃이 일고 있다. 탑승자는 전부 무사했다.

승객 56명과 승무원 4명을 실은 일본 전일본공수(ANA) 여객기가 13일 오전 착륙기어 고장으로 일본 남서부 고치(高知)공항에 앞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비상착륙하고 있다. 활주로에 미끄러지는 앞 동체에서 불꽃이 일고 있다. 탑승자는 전부 무사했다. /연합뉴스

# “北,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 발언은 부시 압박용”

## 북핵 전문가 “사실 아닌 美 결단 촉구 의도 인듯”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했고,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금융제재를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초기 단계 상응조치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힐 차관보와 부시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북핵 협상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은 12일 “김 부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 회담을 마치고 일본과 중국에 잠깐 들러 한 발언은 부시 행정부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알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김 부상이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는 미국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같다”면서 “힐 차관보를 압박해 부시 행정부의 결단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니 부통령을 비롯한 보수감경파들의 부정적 여론이 강해진데다 무엇보다 일본과 북한간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김 부상의 이번 발언은 협상과인 힐 차관보를 압박,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부시 대통령의 결

단과 양보를 이끌어내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BDA의 북한자금 동결해제 문제와 관련, 이 소식통은 “미국은 합법자금만 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중국과 마카오 당국이 이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2천400만 달러 중 일부만 선별해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미 행정부가 이미 중국과 마카오당국에게 이 문제를 넘겼다고 밝힌 만큼 마카오 당국 등이 설사 2천400만달러 전부를 풀더라도 북미관계 악화를 우려, 강력히 항의하는 않을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진짜 샤라포바는 어디에 있을까



마리아 샤라포바 선수와 닮은 모델들이 11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에서 열리고 있는 퍼시픽 라이프 오픈 테니스대회 미디어룸에서 샤라포바의 경기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샤라포바가 후원하는 캐년사의 신제품 판촉 행사에 샤라포바와 함께 참가한다. /연합뉴스

## 日 방문 하워드 濠 총리, 위안부 관련 경고

## “일본은 구차한 변명 말라”

일본을 방문 중인 하워드 호주 총리가 2차 대전 기간 중 위안부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 ‘구차스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호주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호주 일간 에이지는 하워드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앞둔 12일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베 총리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하워드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총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하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나 군부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해 피해 당사자와 관련국들의 공분을 샀었다.

하워드 총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구차스런 변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주장은 나로서는 절

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지는 자바 포로 수용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호주 애들레이드 거주 안 러프 오헤른(84) 할머니가 하워드 총리에게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오헤른 할머니는 일본이 전시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에 대해 시인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른랜드=연합뉴스

## 캐나다 의원, 위안부 관련

## 日 공식사과 요구 법안 상정

캐나다 신민당(NDP) 올리비아 초우 의원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13일 밴쿠버조선에 따르면 초우 의원은 국제여성의 날(3.8)에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정식 논의는 하원이 재개원하는 19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운동이 새로운 뇌 신경세포 생성”

운동이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메디컬센터 신경과전문의 스킵 스몰 박사는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3월

12~16일자)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운동이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海馬)의 한 부분인 치상회(齒狀回)에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터=연합뉴스

## 빠르게 늙어가는 지구촌...2050년 노인 20억명

### 유엔 인구 전망 보고서, 한국·일본 등은 인구 감소

오는 2050년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억명에 달할 것으로 유엔이 12일 전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 인구 분과는 이날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현재의 67억명에서 25억명 늘어난 92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난 20억명에 달해

전체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가 지구촌 고령화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유엔은 “세계 인구는 2050년 90억명을 넘어선 뒤 계속 늘어나겠지만 선진국의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고 고령화가 눈에 띄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인구는 2050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인 약 12억명을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구 소련 국가 대부분과 일부 도서 국가 등 46개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개발 국가 50개국의 인구는 현재 8억명에서 2050년에는 17억명으로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아프리카 스탄, 콩고민주공화국,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니제르, 동티모르, 우간다 등의 인구는 세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M

#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고려수업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대원영

1. (사) 한익대 입학생 모집대원영  
- 2007년 3월 14일(수) 10:00 ~ 12:00 (12월 14일)

2. (사) 한익대 입학생 모집대원영  
- 2007년 3월 14일(수) 10:00 ~ 12:00 (12월 14일)

문의: 한익대 입학생 모집대원영  
02-2000-8253  
www.hanik.ac.kr (입학)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 0106-313-1515

#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둔다기

장래를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차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다시이런치않고 싶으신가요? 한익대기부금은행 상담전화 ☎ 377-3475